

학교 석면철거 시작...학부모들 여전히 불안

광주·전남 107개교 방학중 공사
지난 3년 공사 부실 사례 수두룩
모니터단·돌봄교실 조절 등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강화

겨울방학을 맞은 학교 현장 곳곳에서 석면철거 공사가 시작됐다. 새 학기 전 교내 석면자재를 완벽하게 퇴출시켜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교육당국 방침에도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지난 3년간 드러난 부실공사로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례가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양교육청은 이번 방학동안 모두 107개 학교에서 석면해체·철거 공사를 진행한다. 새 학기 전 교실·교무실·과학실 등 각종 실기

실·화장실 등 학생과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서 석면자재를 철거하는 게 목표다.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공사를 진행한다. 전남에서는 81개 학교에서 공사를 벌인다. 유치원 4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9곳, 고교 13곳이다.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퇴출시켜 학생 건강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장기 계획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 들어 외부전문가·학부모 등으로 석면철거공사 모니터단을 꾸려 공사 현장을 상시 검사하도록 감독을 강화했다. 공사 마무리 후 학생 사용 전에도 모니터단이 공사가 이뤄진 곳을 다시 한번 살핀다. 석면의 경우 해체·제거 공사가 부실하면 석면철거 공사를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사 과정은 물론 이후 정리작업까지 완벽하지 않다면 '공기 중에

석면가루가 떠다녀 공사를 하지 않은 것보다 학생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판단 아래 "부실하게 공사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남 역시 과거 부실했던 것과는 달리 공사 이전부터 대상 학교 학사 일정조정, 학생 및 교사 건강보호 대책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장소를 인근 아동센터로 옮기거나 학부모 협의를 거쳐 돌봄교실 운영 기간 등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공사가 이뤄지는 학교 건물 외에 건물이 없는 경우 비록 작업장소는 다르더라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가루를 학생들이 마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전남에서만 무려 48개 학교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인 건물 등에서 돌봄교실·방과후학교·별설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광주는 2개교, 전국에서는 462개교가 석면철거 공사 건물 등에서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학교는 학부모에게 석면철거 공사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입자 크기가 지름 0.02~0.03㎛로 초미세먼지(2.5㎛)보다 작다. 소량, 단기 노출에도 인체에 치명적이다.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진행증(석면폐·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소량, 단기 노출에도 발병이 가능한 악성중피종의 경우 국내 석면산업의 성장과 사용시기 등을 고려한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45년 무렵 발병이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됐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쌍쌍 달려라~ 신나는 스케이트장
대한(大寒)인 20일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윤창호법’ 시행 한달 광주 음주운전 40% 줄어

전남지역도 23% 감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한 달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음주단속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간(2019년 1월 17일까지) 음주

단속 실적은 총 301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8건 대비 40.7%나 줄어든 수치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 사례는 1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감소했다.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측정 거부) 건수도 178건으로 29.6% 줄었다. 이 중 측정거부로 면허 취소된 사례는 14건으로 지난해 9건보다 55.6% 증가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같은 기간 음주단속 건수는 총 428건으로 전년 동기 561건에 비해 23.7% 감소했다. 면허정지 건수는 204건으로 27.4% 감소했고, 면허취소는 224건으로 20% 줄었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과 경찰의 대대적인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 등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유치원 기간제 교사들
교육감실 점거 농성 해제
고용안정 협력 합의서 서명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남도 교육감실에서 농성하던 유치원 기간제 교사들이 점거를 해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들과 고용안정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 작성 후 기간제교사들은 농성을 풀었다. 양측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14일 오후부터 장석웅 교육감실에서 머물며 퇴실 요청을 거부했다. 기간제교사들은 내년 3월 1일까지 '방과후 전담사'로 명칭을 변경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확약을 장 교육감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다. 5일째 이어졌던 교육감실 점거상황은 도교육청이 '양측이 참여한 TF를 만들어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기간제교사들이 받아들여면서 종료됐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정규 교사, 전일제 방과 후 과정 교사,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전남에 657명이다. 양측 합의에도 유치원 신입생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 과잉), 타직군과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 고용안정을 둘러싼 난제가 여전 있어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49
달뜨기 17:55
달지기 07:28

방파제 파도 조심

구름 많은 가운데 당분간 바닷물 높이 높겠다.

광주	구름 많음	-3/8	보성	구름 많음	-4/7
목포	구름 많음	0/7	순천	구름 많음	-2/9
여수	구름 많음	-1/8	영광	구름 많음	-3/7
나주	구름 많음	-4/8	진도	구름 많음	-1/6
완도	구름 많음	1/8	전주	구름 많음	-5/6
구례	구름 많음	-4/8	군산	구름 많음	-4/7
강진	구름 많음	-2/8	남원	구름 많음	-7/7
해남	구름 많음	-2/7	흑산도	구름 많음	2/8
장성	구름 많음	-4/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1.0~2.0
	먼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0.5~2.0
	먼바다(동)	북서~북	1.5~3.0	서~북서	1.5~2.5
남해	먼바다(서)	북서~북	2.0~3.0	서~북서	1.5~2.5

◇생황지수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0.5~2.0
남해	먼바다(동)	북서~북	1.5~3.0	서~북서	1.5~2.5
남해	먼바다(서)	북서~북	2.0~3.0	서~북서	1.5~2.5

◇물때

	간조		만조	
	07:12	01:41	02:48	09:26
목포	07:12	01:41	02:48	09:26
여수	15:29	21:32		

◇주간 날씨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	☀	☀	☁	☁	☀	☀
-3/10	-2/7	-3/7	-2/6	-2/5	-3/5	-2/6

광주 북구, 지방자치경영대전 보전복지부 장관상

광주시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 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보전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북구는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고령화 대비 대책 등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서구 노인 일자리 모집

광주시 서구가 21일부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오는 31일까지 선발된 3900명의 노인은 광주시니어클럽, 노인 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의 45개 사업에 최대 12개월동안 활동하게 되며, 월 27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받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봉사활동 등이 포함된 공익활동형과 식품제조 판매, 아파트 택배 등 시장형, 경비원 등의 인력파견형이다. 모집대상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만60세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

설연휴 환경오염 감시·단속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설연휴를 전후해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뤄진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 공무원 600여 명이 투입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00여곳과 환경기초시설 930여 곳, 주요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고자 3단계로 나눠 감시·단속 활동을 벌인다.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추진하는 1단계는 사전 홍보·계도 위주로 실시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